

영광군, 새해 맞이 민생경제 활성화 '총력'

전국 최고 금액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눈길' 출생·노후 지원·농가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책도

영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으로 힘찬 새해를 시작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설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 영광군 주소자 5만 2천 333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최고 금액을 지급하며 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가장 먼저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주소가 전남으로 돼 있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18세까지 매월 군

비가 포함된 20만원의 '출생기부수당'이 지급된다. '단입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을 지급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아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게 됐으며,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도 종전 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지원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이나 시장어음, 취미생활을 위한 '무료버스이용'으로 이동권을 보장했고,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연 60만원의 '어르신 부양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 후 퇴원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에 취사,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돌봄인력 파견을 통한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농가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기존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62억원 지급에 이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논 콩 10ha 이상 재배단지에서 직접화 비율에 따라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만 51세 이상 여성농업인 200명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농용 트랙터 미보유자 농작업에 발걸이 등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건강한 농촌을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편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모바일 신분

증'을 도입해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기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안내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분야 지원으로는 문화예술촌과 작은미술관을 운영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 기회를 확대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새해에는 군민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영광군을 활기찬 공동체로 만들겠다"며 "군민들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 '한라봉·레드향'으로 설 명절 감사 마음 전해요"

13brix 이상 높은 당도·과즙 풍부

진도군에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 한라봉과 레드향이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현장 기술 교육을 통해 당도 13brix 이상, 일정 크기 이상의 과일만을 출하하는 등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은 속이 빈틈없이 딱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저농약 과일로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다. 진도의 한라봉·레드향은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5·10kg 단위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는 32개 농가가 69ha에서 150t을 생산해 약 20억원의 농가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부터 재배가 시작된 한라봉과 레드향은 진도 대파보다 재배 면적당 소득이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진도군 관내 농가에서 농민들이 당도가 높은 한라봉과 레드향을 선별하며 수확 작업에 한창이다. <진도군 제공>

특히 다른 지역보다 연간 1천 200시간 정도 일조량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15.8℃로 따뜻해 난방을 하지 않고도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 우량 묘목 지원 ▲맞춤형 전문

기술 자문·재배교육 ▲무인 방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진도 한라봉과 레드향은 청정지역의 따뜻한 비릿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

산돼 한번 맛을 보면 깊은 맛과 향에 꼭 다시 찾게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지도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농업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정재훈 "승화원 위탁 집행부 소통 부재"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지역 발전·시민 행복' 위한 책임행정 요구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원·동명·만호·유달동·사진)이 제 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신뢰와 협치를 통해 시민이 행복 목포를 만들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의회의 고유 역할은 강력한 집행부의 권한이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역할이 충실할수록 많은 부분들이 반박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목포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며 소통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했다. 정재훈 의원은 승화원 민간위탁 문제를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는 "목포시 화장장(승화원)은 목포시민 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영암 등 전남 서부권 지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했고, 행정의 기본인 절차조차 무시했다"며 "이러한 소통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원·동명·만호·유달동·사진)이 제 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신뢰와 협치를 통해 시민이 행복 목포를 만들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부재로 집행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됐다"며 질책했다. 또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 업무가 속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회가 제시하는 정책 대안이 의원들의 일방적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정치적 진영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2025년 한해는 소통과 신뢰하는 행정 추진을 촉구하며 목포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피력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 해제면 이장협의회장 선거 '갈등 심화'

회장임기 '단임' 규정 불구 전임 회장 출마 시도 '반발' 부정 선거 우려...다수 이장 순환 추대·투명성 확보 요구

무안군 해제면 이장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 해석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무안군 해제면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해제면 이장협의회 전임 회장이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두 차례 정관 수정을 시도했으나 이장단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장협의회 정관 제7조 임원임기에 본회 임원의 회장임기는 단임으로 2021

년부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임 회장이 "현 정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내세우며 재선 출마를 시도하고 있어 이장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장협의회장 선거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개입하며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 이장은 "이번 협의회장 선거는 단

순히 지역사회를 위한 리더를 선출하는 자리라 아니라 돌아오는 지방선거와 연결돼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출마 자격이 없어야 한다"며 "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판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이장들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서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순환 추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거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B 이장은 "현재 선거 과정은 관리·감독 체계가 없어 부정 선거 우려가 크다"며 "중립적인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이장은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4개 학군이 돌아가며 협의회장을 맡는 '순환 추대 방식'이 특정 인물·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정관 문제와 정치적 개입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안군 해제면 이장협의회 선거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선거가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안=김성호 기자

신안군, 증도-지도간 지방도 805호선 개통

교통사고 위험 완화·통행 시간 단축...총사업비 232억 투입

신안군은 19일 "지도와 증도는 있는 지방도 8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사진> 증도-지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연장 3.3km, 왕복 2차로 도로신설 사업으로, 201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년 6개월 동안 총사업비 232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도로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의 기하구조가 부적합해 평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었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통행 시간이 10분에서 4분으로 단축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100회 우승' 목표 출정

김진우·문현우·이태규 장사 입단

영암군민속씨름단 천하장사들이 군민 앞에서 100회 우승을 목표로 을사년 출정을 알렸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300여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민속씨름단 선수 입단식과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팬들의 응원 속에 새해 씨름단의 다짐과 목표를 나누고, 새로 입단한 선수를 환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오는 24·30일로 예정된 '2025년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등 올해 대회 참가를 대내·외에 알리는 출정식을 겸했다. 올해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새로 합류



한 장사는 소백급 김진우, 태백급 문현우, 한라급 이태규, 백두급 백원중 선수다. 기술씨름의 강자인 김진우 장사는 부평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증평인삼배 고등부 경장급 1위를 차지했다. 들배지기가 특기인 문현우 장사는 여수공고·울산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또 다른 들배지기 장인 이태규 선수는 능인고·경기대를 졸업하고, 제10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인전 용사급에서 1위에 등극했다. 잡채기의 달인인 백원중 장사는 송곡고·한림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추석장사씨름대회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덕장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17명의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017년 창단 이래 장사 7회, 전국체전 금메달 7회, 단체전 11회로 총 98회의 우승을 일궈냈다. 나아가 씨름단은 특유의 친근한 이

미지로 방송 출연, 지역 특산물 홍보, 이웃돕기 성금 기부,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영암군민의 자라이자 지역사회의 중요 자산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린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올해에는 100회 우승이라는 대한민국 씨름의 금자탑을 쌓도록 군민과 함께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미소, 설 맞이 최대 46% 할인

24일까지...구매왕 선정 등 행사 다채

해남군은 19일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남미소에 입점된 50개 업체에서 163개 상품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주요 품목은 해남에서 생산된 ▲명품 쌀·잡곡 18종 ▲축산물 17종 ▲수산물 37종 등을 선보인다. 특히 해남미소 입점업체의 대표 상품을 혼합 구성한 명품 꾸러미세트는

명절 기간에만 판매되는 인기 상품이다. 8종으로 구성된 1호부터 12종 4호까지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3만 5천 원부터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100개 이상 대량 주문시 맞춤형 상품 구성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받는 사람이 직접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해남미소 e-상품권 할인 행사와 명절 기획전 기간 구매 총액이 가장 많은 구매왕 50명과 행운왕 30명을 선정해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해남미소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박필용 기자